

## 무교회주의 실천한 기독교 선각자의 삶 복원해

《김교신 전집(전8권)》 1차분 3권 나와

한국에 '무교회주의' 신앙을 전파한 기독교 선각자 김교신(1901~1945)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기획된 《김교신 전집(전8권)》(부키) 1차분이 출간됐다. 김교신이 생전에 발표한 글을 모은 《인생론》《신앙론》과 신우, 문우, 문하가 김교신을 추억한 글을 모은 《김교신을 말한다》가 그것이다.

《김교신 전집》은 지난 1964년부터 1975년까지 경지사에서 전7권으로 출간된 바 있지만 한정본으로 만들어져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국한문 혼용에 세로쓰기여서 읽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한자로 써어진 원문 상당 부분을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이 적지 않게 변형·왜곡됐고, 김교신이 창간하고 글을 발표한 《성서조선》 영인본이 미간된 상태에서 진행돼 크고 작은 오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2001년판 《김교신 전집》은 이런 오류를 잡아내는 동시에 한자어를 원문 그대로 살리고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는 뜻풀이를 달고 출전을 밝혀 완성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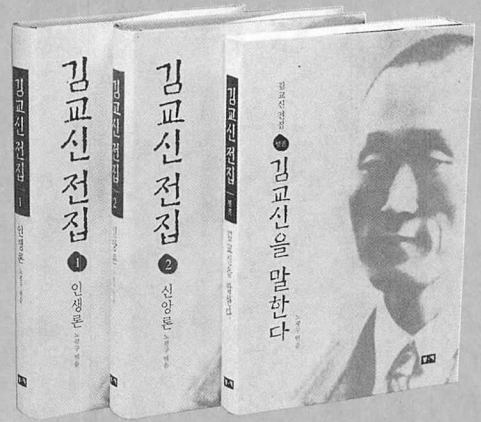
김교신은 함석헌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무교회 신앙을 주창한 기독교 민족주의자 우치무라 간조(内村監三)의 강의를 들었다. 여기에 영향 받아 무교회주의자로 변신한 김교신은 《성서조선》의 창간과 간행을 주도하고 무교회주의 운동과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한국 기독교사의

입지전적 인물이다. 무교회주의란 교회와 성직자로 대표되는 기성 기독교의 조직

과 제도를 비판·거부하고, 원시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신앙과 《성서》 공부 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다.

종교학자 임성빈 교수(43, 장신대)는 “무교회주의는 기성 기독교계의 제도와 형식을 비판했기에 상당히 경원시돼왔다. 또 무교회주의 신앙인들 역시 소규모로 상당히 전문적인 《성서》 공부에 활동을 국한시켜 대중적인 신앙운동이 되기 힘들었다”면서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와 세속화가 심각한 시점에서 김교신의 순수하고 철저한 신앙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전집출간의 의의를 평가했다.

앞으로 《김교신 전집》은 세번에 나눠 완간될 예정이다. 2차분 《성서 개요》《성서 연구》가 8월 말에, 3차분 《일기(전3권)》가 12월 말에, 기타 《성서조선》사건 당시 압수·소각되고, 화재로 소실된 자료 가운데 남아 있는 미공개 일기 및 서간문을 4차분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 강성민 기자



부키/A5신/444면 내외/18,000원 내외

## 사물을 다르게 보는 안목 키워주는 백과사전

〈어린이를 위한 라루스 백과사전〉 시리즈 나와



주니어김영사/A4변형/80면/각 9800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브로크하우스》와 함께 세계 3대 백

과사전으로 평가받는 《라루스

백과사전》의 어린이판 《어린이를 위한 라루스 백과사전(전5권)》이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다. 이 책들은 뾰뾰한 글자와 책의 두께 때문에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보통 백과사전과 달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발행됐다. 나열식의 기술방법을 벗어난 짜임새 있는 구성은 백과사전에도 기승전결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얇고 가볍게 만들어졌으며, 주제에 맞는 예시가 쉽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1권 《동물의 생활》에는 동물의 새끼 만들기부터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 동물의 먹이와 공동생활, 의사소통 방법 등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담았고,

2권 《세계의 동식물》에는 열대와 한대, 강과 바다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동식물의 모습을 실었다. 3권 《생명》에서는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폭넓게 조명했고, 4권 《우주》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의 탄생과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태양계 밖의 많은 별들과 은하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마지막 5권 《사람의 몸》에서는 우리 몸의 구성과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다.

여느 백과사전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구성은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어린이를 위한 백과사전답게 아이들 수준에 맞는 질문과 답을 유머러스한 그림과 함께 실었으며, 각 단락의 끝에는 퀴즈를 넣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진으로 보기' 코너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맛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를 통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준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법,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다는 점도 이 시리즈의 장점이다. - 박옥순 기자